

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에 힘쓸 터



지난 2월 14일 5대 한국출판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종국 혜천대 교수는 앞으로 산학 협동의 활성화, 해외 연구기관과 대학들 간의 학술 교류에 중점을 두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국출판학회는 2003년 현재 34년의 역사를 가진,

회원 200여 명, 회원들이 국내외에 발표한 논문만도 500여 편을 헤아리는 ‘출판학’ 연구공동체.

“학회 초창기 멤버는 고故 남애 안춘근 선생, 민병덕 교수, 황병국 교수 등이었으며,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 동인회 형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안춘근 선생이 초대 회장을 맡으셨고 윤행두 선생, 민병덕 교수 같은 분들이 역대 회장직을 맡아 열심히 일하셨죠. 전자출판, 저작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어 저에게 자문을 구해올 경우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출판학회는 1972년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한국출판학회상’을 매년 저술·연구, 기획·편집, 경영·영업, 특별공로 부문의 4개 영역에 걸쳐 수상하고 있으며, 공동 논문집인 <한국출판학연구>를 통권 44호까지 간행했다. 올해 10월 중국 무안에서 개최되는 국제출판학술회의가 11회째인데, 11회 동안 한국출판학회가 3회를 주최했다.

“우리나라 한 해 출판물이 30여만 부가 쏟아집니다. 또 세계적으로 늘 10위권 이내에 들어요. 출판강국임에는 틀림없는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죠. 번역원을 설치하고 노력중인 것으로 알지만, 우리가 국내의 출판문화와 산업을 세계를 향해 발전시키기 위해선 외국시장을 공략해야 됩니다. 한글을 읽는 독자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포들도 그들이 귀속된 나라의 책을 읽는 실정이지요. 그동안에는 우리 안살림만 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문화 인프라를 국제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국 회장은 중국어 권역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북경어 중심의 중국어가 널리 사용되도록 실질적으로 장려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또한 중국은 북경대학, 칭화대학 등 4년제 대학에 출판학과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며 중국출판의 앞을 향한 태도를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연중 독서율이 채 10권이 못 됩니다. 전 독서율이 국가경쟁력과 맞아떨어진다고 봐요.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큰 무기는 출판이죠. 출판이 흔들리면 국가의 모든 부분이 흔들립니다. 모든 인프라의 중심 부분에 있는 것이 책의 문화죠. 정보의 근원, 역사의 뿌리인 출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출판을 배우는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판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점은 출판계에서는 처음부터 숙련된 편집자, 제작자를 원하지만 한 사람의 전문적인 편집자를 양성해 내기 위해서는 10년도 짧다는 것이다. 그만큼 현장에서 기대하는 인력을 바로바로 배출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 출판업은 다른 제조산업처럼 생활필수품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지식상품, 아이디어 산업이다 보니 질적인 부분을 담보해 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10분 만에 만화책 한 권 읽는 세상, 능률의 시대, 스피디한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책을 읽고 그 감동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보기 힘들죠. 책월자도 자冊越者盜者라고, 무엇보다 숭서이념, 책을 숭상하던 우리 민족이 책을 경시하고 독서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외형상의 출판강국이 아닌 내실을 갖춘 출판강국을 만들기 위해 학회가 할 일이 많다고 이종국 신임회장은 다시 한번 의욕을 밝혔다. **이종국**

취재 양선희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